

주님 수난 성지 주일(4월 13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루카 22,14-23,56)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해골 터'란 뜻의 골고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오른쪽 아래 구석에 널브러져 있는 아담의 해골은 예수님께서 아담의 원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교리에서 기인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배경으로 예루살렘 도성이 보인다. 십자가 명패에는 히브리말과 라틴말과 그리스말로 '유대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숨을 거두셨다. 낮 열두 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숨을 거두신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많은 피를 흘리셨지만, 임종의 경련을 보이지 않고 편안하게 숨을 거두셨으며, 예수님의 몸에서는 후광과 함께 빛이 난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서막이기 때문이다.

작가 칼 하인리히 블로흐 | 1870년, 동판에 유채, 104x92cm, 국립역사박물관, 덴마크.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15번 “수난 기약 다다르니”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높은 데서 호산나! 당신의 크신 자비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루카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를 침묵 속에 읽어봅시다.
(매일미사 참조)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너희는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다. (루카 22,28)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루카 22,40)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님의 수난기는 단순히 그분의 수난과 죽음에 대해 전하는 기록만이 결코 아닙니다. 성자의 수난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타적인 사랑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범 이상입니다. 구원입니다. 성자의 죽음은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한 몫을 차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자의 사랑의 모범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신 분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희망합니다. 오늘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을 거행하면서 우리는 기억하고 이해하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단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기억해야만 하는지 기억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 기억과 이해를 넘어서 우리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억하며 거행한 행렬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세례 때에 시작하신 그 순례길을 우리가 함께 걸었습니다. 주님의 수난과 죽음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신앙으로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 의미가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되새기며 십자가 위의 예수님께서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하느님 아버지의 놀라운 권능을 믿으며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성령의 크신 은혜 청하도록 합시다.

생명의 말씀 써보기 [루카 22장 46-4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라고 하는 자가 앞장서서 왔다.

함께하기

| 진행자 | : 우리 소공동체가 희년을 살아가며 실천할 사항들을 정해 봅시다.

《아픈이를 돌봄》 4월 5-6일 병자들과 보건 분야 종사자의 희년 일정에 따라

공동체와 함께

- ① 우리 공동체 속 의료 종사자들을 위해 미사 중에 기억하기
- ② 우리 공동체 속 아픈 이들을 방문하여 위로와 함께 기도하기

내 삶 속에서

- ① 아픈 모든 이들을 위해 식사 후 기도로 병자를 위한 기도 바치기

병자를 위한 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앓는 사람에게 강복하시고
갖가지 은혜로 지켜 주시니
주님께 애원하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아무)의 병을 낫게 하시며
건강을 도로 주소서.
-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팔로 감싸 주시며
주님의 힘으로 굳세게 하시어
더욱 힘차게 살아가게 하소서.

◎ 아멘.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15번 “수난 기약 다다르니”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